

장미오일을 이용한 새로운 촉감부여 가공

일본의 섬유전문기업인 Marusa(丸佐)(주)는 2015년 춘하시즌용으로 새로운 촉감부여 가공제품인 「로즈프리미어(Rosepremier)」를 개발하였다. 「로즈프리미어」는 바지를 워싱가공하여 실크와 유사한 사각사각한 촉감을 부여한 것이다. 나노입자 에멀션(emulsion) 약제인 장미오일, 실크 아미노산 및 올리브 스쿠알렌 등, 사람의 피지에 가까운 천연 보습성분을 함유하여 피부에도 좋다. 이 중에서도 장미오일은 피부보호 효과 및 노화방지 효과가 있으며, 비타민 C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이밖에 숙녀용 하의, 남성용 의류, 정장, 방적사 4종류의 제품을 선보였다. 남성용 의류에서는 캐주얼 스타일, 비즈니스 스타일 2종류, 정장 의류에서는 일본 도레이와 원사부터 공동개발한 엑스트라 블랙 및 항필링 폴리에스터·레이온 혼방사 등 일본에서 개발한 원사를 선보였다.



<그림 1> 2015년 춘하시즌용 종합소재전시회에서 전시된 「로즈프리미어(Rosepremier)」 샘플

♣ 섬유뉴스 (2014. 5. 30)